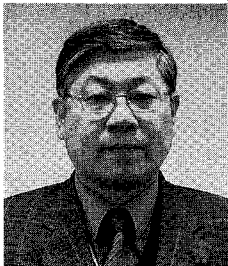


## 현장질병 중심의 각종 세미나를 통해 국내 닭질병 방역의 기틀마련...



모 인 필

가금질병연구회 회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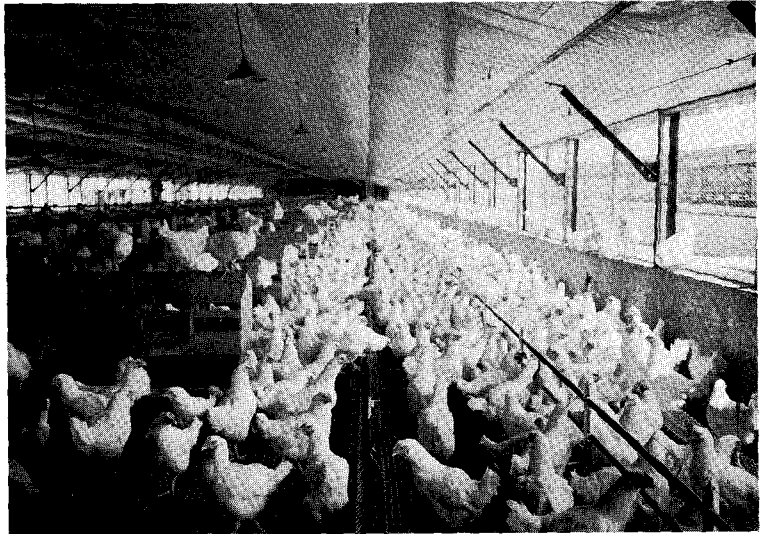
2002년은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통령선거, 지방단체장 선거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많은 해이기 때문에 참으로 분주하게 지내야 할 것 같다. 또한, 축산전체로 볼 때도 이제 힘들게 박멸을 한 구제역과 돼지콜레라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정화 위치를 지켜야 하고 양계산업측면에서도 뉴캐슬병 박멸 2년차로서 모든 힘을 뉴캐슬병에 집중시켜 새로운 양계산업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들에게 바쁜 한해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계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가금질병연구회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비전(vision)과 2002년 활동방향을 월간양계를 통하여 여러 양계농가에 홍보하는 것은 참으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지상을 통하여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인 만큼 본 연구회에 대한 그동안 활동사항 등도 곁들이고자 한다.

1985년 이 연구회가 처음으로 설립될 때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조류질병과(가축위생연구소 계역과)의 연구원들과 닭질병을 전문으로 하는 임상수의사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 활동방향도 가금질병 예방, 치료 등에 대한 신기술정보를 회원상호간에 교환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초기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어 현재는 회원이 약 115명이며 구성에서도 연구직 공무원이나 임상수의사이외에 농장이나 관련업체의 회원도 많이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다.

년간 활동사항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봄과 가을에 2회,

학술행사와 정기총회를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활동이 강화되어 연간 3~4회 모임을 갖고 있다. 과거에는 행사장소도 대전 등 여러 곳에서 개최를 하였으나 1999년부터는 천안의 상록리조트를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 장소를 고집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행사부에서 후원하는 공무원 참여 연구모임의 A등급으로 판정되어 해마다 200만원 정도의 강사료와 학술지 간행비를 보조받고 있어 명실



△가금질병연구회는 금년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중심으로 세미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부한 전국조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실시하였던 행사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가능한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1주제에 30분에서 40분씩 4~6개 주제를 발표하였다. 예를 들어 2001년 행사에서는 “국내 닭고기 수출관련 위생·방역 세미나”라는 주제로 최근 급속히 국내 양계산업에 불고 있는 닭고기 수출에 대하여 방역과 위생측면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토의를 하여 보았다. 일반적으로 토의는 주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저녁식사 후에 연구회에서 준비한 큰방에서 밤새 진지하게 계속 진행이 되며 이 때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오고간다.

가금질병연구회의 2002년 활동계획을 간단히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연구회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활동으로는 2번의 현장세미나와 1번의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이다. 현장 세미나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뉴캐슬병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3월 이전에 1

회 실시하고 최근 현장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ORT 등의 현장질병을 중심으로 6월 이전에 한번 더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가을의 정기총회와 학술세미나에서는 가능한 외국의 현장수의사를 모시고 세계 각국의 질병현황을 생생히 들어볼 예정이다.

일부 원로 회원들의 의견으로서 지역간 소모임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거론되어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이나 일단은 활성화가 가능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바람이 있다면 올해부터 가금질병연구회 이름으로 기금을 만드는 일을 착수하고자 한다. 진작부터 여러 회원들이 요청한 사항이었지만 연구회의 목적상 필요성이 절박하지 않아 실시되지 않았던 사항이다. 가금질병연구회가 큰 모임은 아니지만 닭질병 방역에 알찬 모임이 되기 위하여 많은 회원들이 여지껏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양기**